



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

58 밥은 경험- 박 아줌마 편

77번 아줌마의 죽 한 그릇에 담긴 정

양감이 순한 천성과 다소곳한 성품의 박아  
줌마가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  
었다는 사실은 놀라웠다. 군부독재 시절에 데  
모에 가담한 죄로 재판 결과도 없이 교도소 신  
세를 저야했으니, 당시 그녀가 받은 충격은 자  
살을 결심한 정도로 컸다.

“교도소로 넘어갈 때 여자교도관이 몸을 살  
살이 조사하는데, 심리적으로 워낙 힘든데다  
몸수색까지 당하고 나니 죽고만 싶더라고  
내 존엄이란 건 하나도 없고 재판은 받지도 않  
았는데 죄인 취급을 당했으니...”

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생소했다.  
소변을 보는 일에서부터 차디찬 바닥에서 낡  
은 담요 몇 장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했던 건  
무엇보다 힘들었던 기억이다. 부모님에 대한  
죄스러움에 정체성의 혼란과 존엄성의 상실  
로 삶의 의미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.

“그래도 밥은 세끼 꼬박꼬박 나오고 유치장  
에서보다는 먹을 만하더라고. 특이한 음식도  
많았고...”

교도소에서 만난 여자들은 음식만큼이나  
다양하고 낯설었다. 간통으로 들어온 사람에  
서부터 사기, 절도, 살인 등 일상에서 가까이  
접해볼 수 없었던 군상 속에서 교도소 생활도  
차츰 적응이 되어갔다. 나중에는 수감자들이  
나 교도관들과 친해져 펜스레 어울려거리며  
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생겨났  
다. 그때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던  
이가 '77아줌마'였다.

“우리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어. 그 아줌  
마는 77번이라 '77아줌마'로 불렸는데 장기  
수였어. 원래 장기수들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  
는데 교도소 내에 일손이 필요하니까 몇 명 남

겨놓거든.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을 하러  
나갔어. 나는 77아줌마랑 가장 친했는데 늘 자  
기를 어리석은 죄인이라고 하는 분이었지.”

77아줌마의 답장은 쌀을 씻어 밥을 짓는 거  
였다. 일명 '쌀 고르는 아줌마'로도 통한 그녀  
살을 결심한 정도로 컸다.



박 아줌마는 교도소에 있을 때 단식투쟁 삼일 췌  
되는 날 아침에 먹은 쌀죽의 맛을 잊을 수 없다.

가 낮에 하는 주된 일과는 오래된 정부미에서  
벌레를 골라내는 일이었다. 한가로운 오후에  
쌀을 고르며 앉아있는 그녀 옆에서 이런저런  
수다를 떨곤 했다.

77아줌마와의 우정이 깊어진 것은 어느 날  
교도소에 일명 '큰손'이라고 불린 한 여자 수  
감자가 들어온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. 그 여자  
수감자의 방은 큰손답게 여느 수감자들 방의  
세 개를 합쳐놓은 크기를 사용했고, 심부름을  
해주는 도우미까지 붙여줬다.

“그런 처우가 너무 불공평해 단식투쟁을 했  
어. 그런데 갇힌 공간이라 그런지 이를 하는데  
도 죽는 줄 알았어. 그때 77아줌마는 내가 걱  
정스러워 안절부절 했는데 우리 엄마랑 동갑  
이라 그런지 내가 쌀 갈았나봐. 삼일 췌 되던

날 아침에 쌀죽을 해왔는데, 그걸 먹는데 가슴  
이 미어지더라고...”

77아줌마가 딸처럼 예뻐했던 동료에게 그  
곳에서 해줄 수 있었던 건 죽 한 그릇 밖에 없  
었지만, 그 마음은 모정과 다름없었다. 고작해  
야 창기를 두어 방울 떨어뜨려 쏘 쌀죽이었지  
만 그녀와 나는 것은 '마음'이었다. 고양이가  
어슬렁대던 풍경 속에 한가로이 앉아 쌀을 고  
르던 77아줌마의 우정은 그렇게 죽 한 그릇의  
추억으로 남았다.

이젠 기억조차 빛바랜 시절의 이야기가 끝  
나갈 즈음, 박 아줌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  
내 입안에 털어 넣었다.

“이게 누에고치인데 건강이 좋아지더라고  
어디 아픈 데는 마땅히 없는데 기운이 금방 떨  
러서...”

“아니 수건으로 목매달 데를 찾을 땀 언제  
고 이젠 기운이 부실하다고 약까지 챙겨먹네.  
그리고 큰손이 큰방을 쓰면 큰손이라 그런 가  
부다 하지,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도 시위를 하  
냐. 너무 영풍하니까 마음이 아파야 될 사연인  
데도 코믹해서 자주 웃음이 나잖아.”

사연을 듣는 내내 미안해하면서도 실소를  
터트리던 내게 박 아줌마가 한마디 한다.

“세상이 그런 거지 뭐. 똑같은 상황도 어떤  
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비극도 희극도 되는  
거고...”

교도소에서의 고행이 그녀에게 전식득지  
(轉識得智)의 경지이라도 이끌어 준 걸까. 아  
줌마의 내공이란 게 원래 그러한 걸까. 양감이  
순할 줄만 알았던 박 아줌마는 알고 보니 지혜  
롭고 영통하기까지 한 여자였다.

자유기고가, blog.naver.com/owisdom

동상의 모든 것... 알면 피한다

기상청은 2010년 새해부터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지속  
될 것으로 전망했다. 겨울다운 추위가 맹위에 질세라 사람  
들은 스키, 등산, 얼음 낚시를 즐기지만 동상의 위험도 피  
할 수 없다.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일 하다가도 언제든 걸  
릴 수 있는 동상과 그 치료법을 알아보자.

있다.  
3도: 괴저성으로 조직의 괴사를 일으키며 심하면 피부  
는 물론 근 건 뼈 등까지 파급되어 손가락 발가락 등의 결  
손을 일으키고 가끔 화농을 나타낸다.

#동상의 응급처치법

- 가벼운 동상인 경우

환자를 즉시 실내로 들어오게 해 젖은 옷을 벗긴 후 동  
상 부위를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40℃의 따뜻한 물에 담  
가둔다. 피부가 말랑말랑해지고 붉은 빛을 낼 때까지  
30-60분 동안 담가둔다. 동상에 걸린 부위는 감각이 둔하  
므로 물의 온도는 보호자가 안전하게 체크해줘야 한다.  
너무 뜨거울 경우 환부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, 화상을 입

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. 환자를  
계속 따뜻한 상태에 있도록 하  
면서 다른 의상을 받지 않도록  
주의해야 한다.

- 심한 동상인 경우

환자의 젖은 옷을 벗기고 따  
뜻한 옷으로 갈아입힌 후 즉시 응  
급실로 데려가야 한다. 동상 부  
위를 따뜻하게 잘 감싼 후 최대  
한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 
한다. 예를 들어 아이가 발에  
동상이 걸린 경우 아이를 길게



스키나 눈썰매 등 겨울철 야외활동은 옷이 쉽게 젖을 수  
있어 동상에 잘 걸린다.

#어떤 사람이 동상에 잘 걸  
리나?

젊고 건강한 사람보다 유·소아 또는 노인, 혈액 순환  
이 잘 안 되는 환자에게 자주 발생한다. 수면제나 진통제  
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과 흡연자와 술을 마시는 사람이  
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잘 걸리며 그 밖에 갑상선 기능 저  
하증, 당뇨병, 영양실조가 있는 환자와 동절기 야외훈련  
이 잦은 군인, 산악인, 잠수부에게서 흔히 나타난다.

#동상에도 단계가 있다

동상의 증상은 전신성과 국소성으로 분류하며 국소성  
은 다시 1-3도로 나뉜다.

1도: 홍반성으로 피부표면에 붉게 되거나 부으며 감각  
이 둔하고 며칠 후 화끈화끈한 열감과 가려움증이 발생한  
다.

2도: 수포성으로 발적부위에 콩알 크기의 물집을 형성  
하며 때로는 화농성이 돼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

해서는 안 되므로 입어 가야 한다. 바로 응급실로 갈 수 없  
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응급처치가 중요하  
다. 우선 환자에게 따뜻한 물을 먹이고, 여건이 된다면 동  
상이 걸린 부위를 따뜻한 물(약 37~40℃)에 담가두거나  
담요 등으로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감싸준다.

#겨울철 야외활동시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

- 추위에 장시간 신체 노출을 금지.
- 손발을 자주 씻고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.
- 추위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젖은 내의, 양말, 방한복 등을 입지 않는다.
- 방한복이나 방한화는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정도로 조이지 말 것.
- 추위에 노출돼 있을 때 자주 몸을 움직이고, 수시로 더운 물과 음식을 먹을 것.

이너는기자